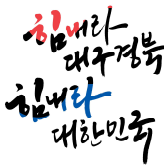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3. 31.(화) / 총 2매	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당자	· 과장 김도곤, 사무관 노지훈 · ☎ (044) 201-4219, 4223	
보도일시		즉시 보도가능합니다.		

진에어 지배구조 개선대책에 제한 해제결정

신규노선 허가 · 신규항공기 등록 · 부정기편운항 허가

- 면허자문회의, 이사회 독립성 · 기능강화조치 긍정평가 -
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31일 외부 전문가(법률·경영·회계·항공교통)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* 논의 결과,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, 신규 항공기 등록,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.

* 법률·회계·항공·안전·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 참석

- 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('10.3~'16.3월),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,
-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「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('18.8.17일).
- ☐ 진에어는 '19.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 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,
- '19.12월 면허자문회의는 “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 독립성·객관적·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”고 지적했다.

-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, 이사회 의결('20.2.3일, '20.2.21일)을 거쳐 정기주주총회('20.3.25일)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.

○ 진에어의 이사회·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【 이사회 독립성 강화 】

- 사외이사를 확대 하되(3 → 4명) 독립적 인물로 선정·교체
-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% 이상 확보('18.3월: 사외3, 사내4, 기타비상무1로 37.5% → 현재: 사외4, 사내3로 57%)
-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 이사를 폐지
-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,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

【 이사회 기능 강화 】

-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,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
-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

【 준법지원 기능 강화 】

-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,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

- 국토교통부는 “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”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.

-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,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노지훈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